

설명적 관계의 다중구조와 설명이론의 정체성

이 재 호[†]

본 논문에서 필자는 분석철학적 전통 하에서 기존의 (과학적) 설명에 관한 이론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리고 최소한 진지한 철학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설명이론이라면 마땅히 가져야할 구조를 분석하며 이 분석의 결과물이 특정 설명이론을 유용하게 성격규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보인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어떤 설명이론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설명적 이해(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이라는 네 개의 차원을 가질 때 완전한 형태의 설명이론의 모습을 갖는다.

【주요어】 설명, 설명 이론, 설명적 실재론, 화용론적 설명 이론

1. 설명이론의 성격 규정과 분류의 문제

C. Hempel과 P. Oppenheim의 기념비적 논문¹⁾의 출판 이후로 영미철학의 전통 하에서 다양한 (과학적) 설명이론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들은 종종 이전의 이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라는 개념에 접근한다고 선전되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식어가 사용된다. 어떤 이론은 설명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이라고 일컬어지며 어떤 이론은 설명에 대한 인과적 접근이라고 일컬어진다. 또 어떤 이론은 설명에 대한 통일 접근이라고 불린다. 각각의 개별적인 설명이론들이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성격 규정되는 것에 덧붙여 어떤 철학자들은 설명이론들을 범주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예를 들어 W. 새먼은 설명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인식적 개념을 갖는 이론들, 양상적 개념을 갖는 이론들, 존재적 개념을 갖는 이론들.²⁾ 또 김재권은 설명에 대한 실재론과 비실재론을 구분한다.³⁾

이런 성격규정 또는 분류들이 종종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화용론적 설명이론”이라는 성격을 규정할 생각을 보자. “화용론적 설명이론”에 대한 가장 소박한 성격규정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1) 어떤 설명이론은 그 이론에 따를 경우 설명적 관계의 분석에 화용론적 고려가 필수적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 화용론적 설명이론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설명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1)이 “화용론적 설명이론”에 대한 대단히 부적절한 정식화라는 것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08년 2월의 승례문 화재의 발생을 당시 승례문 주변의 공기에 연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반면에 산소가 모두 제거되어야 하는 실험실에서 발생한 어

1) Hempel and Oppenheim (1948).

2) Salmon(1984) pp.15-18.

3) Kim(1987).

떤 화재를 그 실험실 안의 공기에 (어떤 이유로)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불만족스럽지 않다.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분명 어떤 종류의 문맥 의존적 요소의 고려, 즉 화용론적 고려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는 전자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송레문 화재를 설명하는 정상적인 문맥 하에서 송레문 주변의 공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설명적 관계에 대한 만족스런 분석에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화용론적 고려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에 따라서 화용론적 설명이론이라고 불릴 수 없는 이론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종류의 설명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고, 이는 어떤 종류의 설명 이론을 “화용론적 설명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정보적 가치가 없는 성격 규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필자의 생각에 이 결론에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

이 불만은 “설명적 실재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적 실재론을 규정한다.

- (2) “내가 설명적 실재론이라고 부르길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C는 c가 e에 어떤 확정된 객관적인 관계 R을 지닌다는 사실로 인하여 E에 대한 설명항이 된다.”⁴⁾

이 성격규정을 약하게 읽으면 설명적 관계의 성립에 설명항 사건과 피설명항 사건 사이의 어떤 객관적 관계의 성립이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설명적 실재론에 대한 너무 약한 성격규정이다. 예를 들어 C와 E 사이에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c와 e 사이에 비동일성이라는 객관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어떤 사건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에 대한 약한 해석에 따를 경우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모든 설명이론은 설명적 실재론이 된다는 귀결이 나오는데, 이는 “설명적 실재론”이라는 개념을 아

4) Kim(1987) p.229 여기서 C는 설명항이며 c는 설명항이 기술하는 설명항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E는 피설명항이며, e는 피설명항 사건이다.

무런 정보적 가치가 없는 개념으로 만든다.

반면에 이 성격규정을 강하게 읽으면 설명적 관계의 성립에 설명항 사건과 피설명항 사건 사이의 어떤 객관적 관계의 성립이 충분조건이 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설명적 실재론에 대한 너무 강한 성격규정이다. 위의 승례문 화재사례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설명적 관계의 성립에는 어떤 종류의 화용론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된 (2)에 따를 경우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어떤 설명이론도 설명적 실재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2)에 따를 경우 “설명적 실재론”은 그것이 정보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참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게 된다. 다시 한 번 이런 결론에는 뭔가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

이상의 사례들은 어떤 설명이론에 대한 성격규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설명 이론을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설명이론이란 것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⁵⁾ 그러나 설명이론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설명에 대한 문헌에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혼란은 설명이론, 즉 설명적 관계에 대한 분석 일반이 갖는 복잡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이론 일반이 갖는 이 복잡한 구조를 분석하고 이 분석에 기반해서 특정한 설명이론의 정체성을 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통해서 “인식적 설명이론”, “화용론적 설명이론”, “설명적 실재론”, “설명에 대한 흠적 이론”등과 같은 개념들이 훨씬 만족스럽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런 개념들 사이의 관계도 훨씬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5) 여기서 “설명이론의 정체성”이라는 표현은 설명이론을 다른 이론, 예컨대 인과 이론이나 추론 이론과 구분시켜주는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설명을 다양한 설명이론들 가운데 특정한, 예컨대 화용론적 설명이론으로 구분시켜주는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 표현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혼동에 대해서 지적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2. 설명이론의 일반적 구조

이 절에서 필자는 설명이론 일반이 갖는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험펠 이후 20세기 후반기의 분석철학의 전통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다음의 네 개의 이론을 모델로 삼기로 한다.

- 험펠의 D-N 모델 (험펠의 I-S 모델도 포함)
- 새먼의 S-R 모델
- 새먼의 인과적 메카니즘 모델 (여타 인과적 설명이론도 포함)
- 키처의 통일 이론

2.1. 반 프라센의 이론과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필자는 우선 필자가 왜 반 프라센의 설명이론을 주요 설명이론의 하나로 포함시키고자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이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의 이론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주요 이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그의 이론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키처와 새먼의 분석에 따를 경우, 그의 이론은 완전한 설명이론으로 볼 수 없는 미완의 이론이기 때문이다. 우선 키처와 새먼의 논변을 뒤따라 가보자.⁶⁾

반프라센에 따르면, 설명은 왜-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따라서 설명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두 요소를 갖는다: (a) 왜-질문과 왜-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분석, (b) 이 대답들을 평가하는 기준들. 설명을 요구하는 왜-질문 Q는 순서 삼중체 $\langle P_k, X, R \rangle$ 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 P_k 는 설명될 사실(피설명항)이며 반프라센은 이것을 질문의 “주제”라고 부른다. X는 대조집단이다. R은 설명적 유관성 관계이다. Q는 다음의 세 개의 가정을 갖고 있다: (a) P_k 가 참이라는 것, (b) X안의 각각의 P_j 가 만약 $j \neq k$ 라면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c) 관계 R 을 $\langle P_k, X \rangle$ 에 대해서 갖는 최소한 하나의 참

6) 이후의 필자의 반 프라센의 이론에 대한 요약과 그것의 문제점은 다음에 의존한다. P. Kitcher and W. Salmon, (1987).

인 명제 A 가 존재한다는 것.

왜-질문에 대한 규범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X 의 나머지와 대조되어 P_k 는 A 때문에 발생했다. 여기서 A 는 대답의 핵심이며 따라서 대답은 단순히 " A 때문에"라고 축약될 수 있다. 왜-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족해야 할 네 개의 조건이 있다. 우선, A 는 참이어야 한다. 둘째로 P_k 는 참이어야 한다. 세째로, P_k 를 제외한 X 의 모든 원소는 거짓이어야 한다. 네째로 A 는 $\langle P_k, X \rangle$ 에 대해서 R 의 관계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이론의 두번째 요소, 즉 좋은 대답의 평가적 기준으로 반 프라센은 다음의 셋을 제시한다. (a) 우리는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보아 그럴듯한지 묻는다. (b) 우리는 우리의 대답이 대조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주제를 선호하는지 묻는다. (c) 우리는 우리의 대답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다른 대답에 의해서 무관해질 수 있는지 묻는다.

키쳐와 새먼에 따르면, 반 프라센의 이론의 문제는 그의 이론에 설명적 유관성 관계 R 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키쳐와 새먼은 R 이 사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R 을 B 와 $\langle P_k, X \rangle$ 사이에 P_k 가 B 의 논리적 귀결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관계로 정의하자. 그런 다음에 임의의 주제 P_k 와 대조집합 X , 그리고 명제 A 를 선택하라. 여기서 우리가 갖는 유일한 제한은 P_k, A , 그리고 P_k 를 제외한 X 의 모든 원소의 부정이 우리의 배경 지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A \& (A \rightarrow P_k) \& \sim Z$ 은 $\langle P_k, X \rangle$ 에 대해서 R 의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Z 는 P_k 를 제외한 X 의 모든 명제들의 선언이다.) 이것은 $A \& (A \rightarrow P_k) \& \sim Z$ 가 P_k 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A \& (A \rightarrow P_k) \& \sim Z$ 는 왜-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족해야 할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우선, $A \& (A \rightarrow P_k) \& \sim Z$ 는 참이다. 왜냐하면 P_k, A 그리고 P_k 를 제외한 X 의 모든 원소의 부정들이 모두 우리의 배경 지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Z 가 P_k 를 제외한 X 의 모든 원소의 선언이므로 $\sim Z$ 는 당연히 참이다.) 그리고 P_k 는, 이미 설명된 이유로, 참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설명된 이유로, P_k 를 제외한 X 의 모든 명제들은 모두 거짓이다.

$A \& (A \rightarrow P_k) \& \sim Z$ 가 왜-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인가? 반 프라센의 기준

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 좋은 대답이다. 우선, $A \& (A \rightarrow P_k) \& \sim Z$ 이 우리의 배경 지식으로부터 도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경우 그럴듯하다. 둘째로, $A \& (A \rightarrow P_k) \& \sim Z$ 이 P_k 를 함축하기 때문에 이것은 P_k 를 최대적으로 선호한다. 세째로 이런 함축 관계 때문에 이것이 다른 대답에 의해서 차폐될 가능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키처와 새먼에 의한 이 논변은, 반 프라센의 이론에 따를 경우, 임의의 왜-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임의의 (참인) 명제를 가지고 완벽하게 만족스런 대답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 이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어떤 실체적 내용이 있는 모델이 완전한 설명이론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으로 보인다.⁷⁾ 이런 이유 때문에 키처와 새먼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반 프라센은 설명의 화용론에 대한 아름다운 이론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는 설명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에 대한 보완적 요소이지 그것의 경쟁자라고 여겨질 수는 없다.”⁸⁾

필자가 설명이론의 첫 번째 차원으로 제시하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과 세 번째 차원으로 제시하는 “설명적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은 반 프라센의 이론과 그에 대한 키처와 새먼의 비판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부터 기인한다. 반 프라센의 이론이 갖는 매력은 우리로 하여금 설명적 관계의 분석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화용론적 차원의 고려가 개입된다는 아이디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준다. 반면에 키처와 새먼이 지적하는 반 프라센 이론의 문제는 화용론적 차원의 고려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이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반 프라센 이론의 문제점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

7)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필자의 용어이며, 반 프라센은 “설명적 유관성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필자는 반 프라센의 용어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사용할 것이다.

8) Kitcher and Salmon (1987) p.323.

한 모델이 화용론적인 고려와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는 화용론적인 고려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설명적 유관성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설명의 네 차원의 구분이 설명된 후 2.4에서 제시될 것이며, 이 정의를 통해 필자는 어떻게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모델에 화용론적인 고려가 수용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설명적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점은 이 차원이 과연 어떤 설명이론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차원인가라는 문제이다. D.루이스는 설명적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설명이 특정한 설명이론을 다른 종류의 설명 이론과 구분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이론에 정체성을 주는 차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론을 다른 이론과 구분시켜주는 차원이라는 것 자체도 부정했다. 그는 단호하게 “설명적 화용론이라는 특수한 분과(subject)란 존재하지 않는다”⁹⁾라고 선언했다. 루이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필자의 용어를 사용하면)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라는 것은 인과 관계이며, 설명적 관계의 분석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화용론적 차원의 고려들은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생하는, 즉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특별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용된 숭례문 화재의 예가 여기서 다시 사용될 수 있다. 2008년 2월 숭례문에서 발생한 화재를 당시 숭례문 주변의 공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갖고 설명하는 것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설명인데, 이는 산소의 존재가 그 화재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산소의 존재와 그 화재의 발생 사이에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 지식에 이미 산소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정보가, 비록 그 자체로는 만족스러울 지라도, 진부한 뉴스일 수 있으며, 이것은 설명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거의 또는 전혀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을 수 있기”¹⁰⁾ 때문이다. 새롭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설명적 정보에 국한되는 문제

⁹⁾ Lewis (1986) p.195 인용 쪽수는 Ruben(1993)에서의 위 논문의 쪽수임.

¹⁰⁾ Lewis (1986) p.194.

는 아니며,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이다.

필자는 루이스의 생각에 절반의 동조와 절반의 반대를 갖고 있다. 필자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완전한) 설명이론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을 가져야 하지만 또한 그것과는 구분되는 화용론적 측면도 가질 수 있다. 만약 설명 이론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자체가 화용론적 측면을 갖는다면 우리는 설명의 화용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볼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를 갖는다. 그러나, 루이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설명의 화용론적 측면이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과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후자에는 화용론적 고려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루이스의 주장에 동조할 상당한 이유를 갖는다. 예를 들어 루이스가 옹호하는 인과적 설명이론에 따르면,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모델은 단순히 인과적 관계에 대한 모델이다. 만약 인과적 관계라는 것이 화용론적 고려에 ‘오염’되지 않은 관계라면, 루이스의 주장대로, 우리는 설명의 화용론이라는 것은 없다고 볼 상당한 이유를 갖는다. 그리고 만약 설명의 화용론이라는 것이 없다면 설명적 관계의 화용론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어떤 특정한 설명이론을 다른 설명이론과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부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인과에 대한 반화용론적 분석, 예컨대 P. 도우의 인과이론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덧붙여서 루이스의 인과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루이스에 동조해 설명의 화용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¹¹⁾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루이스 자신의 반사실적 의존성 인과분석을 받아들일 경우 문제는 보다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많은 철학자들이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가 필수적으로 화용론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²⁾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루이스의 주장이 그의 전체 철

11) P. 도우의 인과이론을 위해선 다음을 볼 것. Dowe (1992), Dowe, (2000). 도우와 관련해 하나 조심할 것은 도우 자신은 인과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준인과관계”(Quasi-caus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그는 이 관계가 비록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설명적 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입장을 위해서는 다음을 볼 것. Dowe (2001) p. 225.

12) 루이스 자신은 자신의 설명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특정 인과이론을 전제

학 안에서 얼마나 일관적인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루이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의 주장은 최소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자체에 침투하지 않는 화용론적 고려는 어떤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요소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적 설명이론이, 루이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듯이,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과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의 완전한 분리를 함축한다면, 우리는 인과적 설명이론을 굳이 화용론적 설명이론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설명에 대한 화용론적 이론”이라는 명칭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자체에 화용론적 고려가 침투하는 이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일 경우 보다 유용한 개념이 된다. 이런 개념적 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1절에서의 (1) 대신에 다음과 같이 “화용론적 설명이론”을 성격 규정할 수 있다.

- (3) 어떤 설명이론은 그 이론에 따를 경우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분석에 화용론적 고려가 필수적일* 경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 화용론적 설명이론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1) 대신에 (3)을 받아들일 경우, 1절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설명에 대한 화용론적 이론”이 아무런 정보적 가치가 없는 개념이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1)에 의해서 화용론적 설명 이론으로 분류된 이론들 가운데서 많은 이론들이 (3)에 의할 경우 화용론적 설명이론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에 따르면, 적어도 키처와 새먼을 따를 경우, 반 프라센의 설명이론을, 흔히 이 이론이 그렇게 불리듯이, 화용론적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성급하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이론에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 빠져 있으며, 이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 반사실적 의존성 인과분석을 옹호한다. D. Lewis, (1973).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의 문맥의존성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볼 것. Maslen (2004).

그의 이론이 정말 화용론적인 이론인지의 여부를 우리가 괄호 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2. 설명적 이해와 지식

우리는 2.1에서 설명에 화용론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 설명 이론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은 어떤 두 사건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설명적으로 유관할 것인지를 기술해 줄 뿐 그 모델이 왜 (잠재적) 설명적 관계에 대한 모델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D-N 모델은, 그 형식적 모델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연역적 추론이 가능할 경우 (잠재적) 설명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해줄 뿐, 왜 그런 조건이 만족할 경우 성립하는 관계가 설명적 관계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¹³⁾ 바로 이 것이 M. 프리드만이 통일이론을 고안할 때 주목했던 통찰이다. 이런 이유로 프리드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적 설명에 대한 이론의 중심 문제는 다음이 된다: 어떤 현상들 사이의 관계가 한 현상이 다른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관계인가의 문제와 이 관계가 왜 설명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는가의 문제이다.¹⁴⁾

설명 이론에서 설명적 이해에 관한 개념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설명(explanation)은 설명하기(explaining)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설명하기는 특정한 인식적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인식적 행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설명적 실재

¹³⁾ 프리드만이 지적하듯이, 험펠 자신도, 그의 (설명적) 이해라는 심리적 개념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D-N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설명적 이해의 개념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는 “법칙적 예측가능성(nomic expectability)”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적 관계가 된다는 험펠의 언급이다. Friedman (1974) p.8.

¹⁴⁾ Ibid. p. 6.

론을 옹호하는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의 인식적 특징을 설명한다.¹⁵⁾

설명하기는 인식적 행위이며, 설명을 갖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적 성취이다... 만약 우리가 지식과 알려지는 실재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설명은 지식의 측면에 있다... 지식은 참을 함축한다. ... 지식에 대한 실재론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객관적인 상대자, 즉 알려지는 것을 갖는다. ... 설명적인 지식은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는가?¹⁶⁾

설명하기가 어떤 종류의 지식(즉, 설명적 지식)을 추구하는 인식적 행위라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설명적 지식이 다른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 경우에만 어떤 관계가 정당하게 설명적 관계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설명 이론이 완전한 설명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설명하기라는 우리의 인식적 행위가 어떤 종류의 지식(또는 이해)을 추구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잠재적 설명적 관계에 대한 모델이 왜 그런 종류의 지식을 제공하는데 적절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설명이론의 두 번째 차원으로 제시하는 설명적 이해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 어떤 특정한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곧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설명적 지식이 어떤 종류의 지식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한 설명이론은 그 이론에 따를 경우 설명적 지식이 어떤 종류의 지식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과 정당화를 내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설명적 이해의 본질에 대한 개념은 어떤 설명이론을 다른 설명이론과 구별지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설명 이론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설명적 이해의 본질

15) “설명적 실재론”은 과연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를 해명하는 것은 이 논문이 갖는 또 하나의 목표이며 이는 3.4에서 제시될 것이다.

16) Kim (1987) p. 228. 쪽수는 다음의 선집에 들어 있는 위의 논문의 것을 따름. Ruben (1993).

에 대한 개념이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따라 나온다. 어떤 설명 이론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 그 이론의 정체성의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델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설명적 이해에 대한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3. 설명과 설명적 이해의 산출

설명(explanation)과 설명하기(explaining)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설명하기가 어떤 종류의 이해(또는 지식)를 추구하는 인식적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경우, 우리는 설명이론이 갖는 또 하나의 차원, 즉 인식적 차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R. 매튜스가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우리는 설명은 그것의 청자의 마음 안에 설명적 이해를 산출하는 인과적 힘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¹⁷⁾ 이 조건은 흥미로운 귀결들을 갖는다. 우선,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설명이라는 것의 존재론적 지위는 (필연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언어적이라는 아이디어가 그럴듯하게 된다.¹⁸⁾ 더 나아가 설명이라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성향적 속성이라는 것 역시 그럴듯해진다. 하지만 이 조건의

¹⁷⁾ Matthews(1981) p. 346. 쪽수는 다음의 선집에서의 쪽수를 따름. Ruben (1993).

¹⁸⁾ 사실 설명의 존재론적 위상이 기본적으로 언어적이라는 것은 설명이 논변의 형태를 띠는 친숙한 햄펠의 아이디어와 잘 들어맞는다. 햄펠에 따르면 설명적 관계는 논변의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이며, 이는 설명이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필자가 지금까지 설명한 설명 이론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받아들일 경우, 설명이 기본적으로 언어적 대상이라는 햄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설명적 관계라는 것이 설명항 사건과 피설명항 사건 사이의 비언어적인 형이상학적인 객관적 관계라는, 예컨데, 인과적 관계 같은 관계라는 또 다른 친숙한 아이디어와 반드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후자의 직관을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의해서 포착되는 관계로 생각하고,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적인 객관적인 관계로, 설명적 관계는 언어적 대상 사이의 관계로 간주해 위의 갈등을 피해갈 수 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직관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가장 흥미로운 귀결은 설명이라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화용론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자가 어떤 설명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종류의 배경지식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고대 신라인들의 마음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는 설명은,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고 친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을 산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배경지식의 문제가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의 존재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배경지식의 유무가, 2.1에서 논의 되었던, 화용론적 문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이 조건은 화용론적 차원의 문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문제도 드러내 준다. 예를 들어, 논변을 위해, 햄펠의 D-N모델이 올바른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라고 가정해 보자. 더 나아가 하나의 심리학적 사실로, 인간 일반이 갖는 인식적 한계로 인해 인간은 1000단계 이상의 하위 도출이 필요한 복잡한 연역적 추론은 수행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자. 마지막으로 이 세계의 어떤 사건(E)의 발생은 그것이 매우 복잡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들과 어떤 초기 조건들(C)로부터 추론해 내기 위해서 1000단계 이상의 하위 도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럴 경우 C와 E사이에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D-N 모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 시키는, 그리고 C를 그 전제로 갖고 E를 결론으로 갖는 연역적 도출이 (가능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D-N 추론은, 위의 심리학적 사실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이해를 산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설명적 지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설명이 설명적 이해와 설명적 지식을 산출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너무 어려운 ‘설명’은 아예 설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문제는 화용론적 고려의 문제라고 볼 수

19) 필자는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의 고려와 인식론적 차원의 고려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들 고려는 일정 부분 겹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필자가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 추가해 인식론적 차원을 도입하려 하는 이유는 후자가 전자의 고려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는 없다. 특정한 문맥적 상황 때문에 설명이 만족스러워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완전한 설명 이론은 화용론적 차원에 덧붙여 인식론적 차원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명적 인식적 차원의 존재를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다시 한 번 논변을 위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BE)이 우리의 기본적인 귀납 추론의 원리라고 가정해 보자. IBE가 연역 추론의 원리가 아니라 귀납 추론의 원리인 이상 이 추론의 전체의 참은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최선의 설명이 참이 아닌 설명이 되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최선이 아닌 설명이 참인 설명이 되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관찰된 현상 P 가 설명을 요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P 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E_1 이라고 가정하자. 더 나아가 P 에 대한 참인 설명은 E_2 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E_1 과 E_2 는 각각 상이한 새로운 이론적 대상 T_1 과 T_2 를 언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가정에 의해서 E_2 에서 언급되는 T_2 와 관련된 설명항 사건과 P 사이에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E_2 와 P 사이에 설명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귀납추론의 원리가 IBE라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E_2 에서 언급되는 T_2 와 관련된 설명항 사건을 통해서 P 를 설명하는 것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종류의 설명적 지식도 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설명이 설명적 지식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명항(그리고 설명적 관계)이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화용론적, 즉 문맥 의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리 보존적이지 않은 귀납적 추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식적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얼마나 우호적인가의 문제이다.

이상의 논의가 옳다면 우리는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 문제는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이 어떤 특정한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차원인가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은 우리의 인

식 일반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연역 추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의 문제는 일반적인 인식론, 또는 심리학의 문제이지 설명에 독특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설명항, 또는 설명적 관계가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인식론 일반의 문제이지 설명에 독특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화용론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의 문제는 설명이론 일반에 있어서 독특한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특정한 설명이론을 다른 설명이론과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없다.

2.4.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정식화

2.1-2.3의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완전한 설명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 다음의 네 개의 차원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a)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b)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 (c)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 (d)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 이미 지적한대로 이 가운데 세 번째 차원과 네 번째 차원은 특정한 설명이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명 이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a)와 (b)이다. 현재의 맥락에서 (b)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일반적 정식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주요 이론들이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를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인다.

-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법칙적 예측 가능성(nomic expectability)을 가질 때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명적 지식은 특수한 종류의 예측적 지식이다.
- 인과적 설명이론에 따르면 설명적 지식은 원인에 대한 지식이다.
- 키처의 통일 이론에 따르면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적 지식은 그 현상이 총체적 현상의 가장 통일된 체계화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²⁰⁾

20) 여기서 새먼의 S-R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설명적 이해의 개념은 언급되지

설명적 이해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라는 차원과는 달리 설명이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식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의 순수 화용론적 차원과 순수 인식론적 차원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상태에서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관계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정식화를 제안한다.

- (4)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어떤 이론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모델은 그 이론이 함축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쌍조건문 BC에 등장하는 M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BC: 모든 사태 x 와 y 에 대해서, x 는 x 와 y 가 조건 M을 만족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어떤 화용론적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인식적 상황 안에서 설명적으로 y 에 유관하다.

이 정식화를 기존의 주요 이론들에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햄펠의 D-N 모델에서의 M: x 가 D-N 추론의 전제에 등장하고 y 가 그 결론이다.
- 햄펠의 I-S 모델에서의 M: x 가 I-S 추론의 전제에 등장하고 y 가 그 결론이다.
- 반사실적 인과 분석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이론에서의 M: y 가 x 에 (어떤 문맥 하에서) 반사실적으로 의존한다. (다른 인과분석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이론에서는 그 다른 인과 모델이 M의 내용을 이룸)
- 키처의 이론에서의 M: x 가 특정 추론을 전제에 나타나고 y 가 그 추

않았는데, 그것은 이 모델이 이점에서 다소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먼은 어떤 곳에서는 (예컨대, Salmon(1971) pp.76-77) 법칙적 예측 가능성의 약화된 형태의 설명적 이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예컨대, Salmon (1971) p. 79) 인과적 지식이 설명적 지식이라는 아이디어를 옹호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론의 결론에 나타나며, 이 추론이 사례가 되는 추론 도식이 특정한 받아들여진 진술들의 집합 K 에 대해서, K 를 가장 통일하는 추론도식들의 설명적 창고 $E(K)$ 에 포함되어 있다.

3. 설명이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그것의 유용성

우리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을 위와 같이 정식화 할 경우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설명적 이해의 본질에 대한 개념과 함께) 특정 설명이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차원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설명이론의 정체성을 그 설명이론이 갖는 M 의 내용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위의 (3)에서 지적된 것처럼, 어떤 이론의 M 에 화용론적 고려가 들어올 경우 우리는 그 이론을 화용론적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고, M 에 인식론적 고려들이 들어올 경우 그 이론을 인식적 설명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는 어떤 이론의 M 에 필연적 연결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언급이 없을 경우 그 이론을 “흠적 설명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개념적 틀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된 김재권의 설명적 실재론의 성격 규정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 (2) 내가 설명적 실재론이라고 부르길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C 는 c 가 e 에 어떤 확정된 객관적인 관계 R 을 지닌다는 사실로 인하여 E 에 대한 설명항이 된다.

우리는 1절에서 (2)에 따를 경우 “설명적 실재론”이라는 개념이 정보가 치가 없기 때문에, 즉 사실상 모든 이론이 설명적 실재론이 되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거나 아니면 사실상 어떤 이론도 설명적 실재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제 2절에서의 논의가 주어질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김재권의 원래의 의도에 충실한 방식으로 “설

명적 실재론”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 (5) 어떤 설명이론은 그 설명이론의 M에 따를 경우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어떤 확정된 객관적인 관계가 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 설명적 실재론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2) 대신 (5)를 받아들일 경우 “설명적 실재론”은 사소하게 참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키처의 통일이론과 같은 인식론적 설명이론은 (인식적 상황에 대한 상대성 때문에) (5)에 따를 경우 설명적 실재론으로 분류될 수 없지만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는 이론이다. 또, (5)를 받아들일 경우 설명적 실재론은 사실상 참일 가능성이 없는, 따라서 흥미롭지 않은 이론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과를 확정된 객관적 관계로 보는 인과이론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이론의 경우 (5)에 따라서 설명적 실재론이 되지만 그 이론이 참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즉 쉽게 거부될 수 있는 이론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필자의 개념적 틀은 설명적 실재론/비실재론의 구분과 관련해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 설명적 비실재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설명적 실재론의 옹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동기는 설명적 관계가 어떤 종류의 객관적 관계에 근거 지워지지(grounded) 않는다면 왜 설명을 갖는 것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상황을 개선시키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²¹⁾ 그러나 여기서 객관적 관계에 근거 지워진다는 것은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로크 식의 1차성질과 2차 성질의 구분에 따르면 색이나 맛과 같은 2차 성질에 대한 경험의 경우 1차 성질의 경우만큼 객관적 실재에 잘 근거 지워져 있지는 않지만 꿈이나 환영보다는 훨씬 더 잘 실재에 의해 근거 지워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설명적 실재론이라는 개념을 정도

21)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적 비실재론을 정의한다. “설명적 비실재론은 반면에 어떤 것의 설명향이 된다는 관계가 그것이 우리의 인식적 총체 안에서 C와 E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사건 c와 e 사이의 어떤 객관적인 관계에도 ‘근거지워져 있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견해이다.” Ibid., 230.

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개념적 틀은 이런 작업을 용이하게 해준다. 만약 어떤 설명이론이 설명적 관계가 순수하게 화용론적인 차원의 고려만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임의의 사건은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화용론적 맥락에서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자.²²⁾ 그럴 경우 설명이론의 모든 내용은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의 분석에서 설명될 것이며 따라서 그 이론의 M은 아무런 실체적인 내용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공허한 M을 갖는 이론을 우리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설명적 비실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이론의 정반대편에는 M의 내용이 전적으로 객관적인 관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도우의 인과이론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 이론을 생각해 보라. M의 내용은 순수한 객관적인 관계의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런 이론을 우리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설명적 실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극단적인 설명적 실재론과 극단적인 비실재론 사이에는 다양한 층위의 설명적 준실재론이 있을 수 있다. 예컨데, 반사실적 의존성 인과분석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 이론을 생각해 보라. 이미 2.1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많은 철학자들은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가 맥락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경우 M의 내용은 화용론적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루이스적인 표준적인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따를 경우, 임의의 사건이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특정 맥락에서 반사실적 의존성을 가진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반사실적 의존성 인과 분석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 이론은 화용론적 차원을 갖는 준실재론적 설명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험펠의 I-S모형을 생각해 보라. 이 모델이 D-N 모델과 대조적으로 갖는 특징적인 성격은, 확률적 추론의 비단조적(non-monotonic) 성격 때문에, 최대구체화조건(the requirement of maximal specificity)이라는 인식론적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험펠은 “특정한 사건들을 위한 통계적 설명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진 진술들의 집합 K에 의해서 표상되는 주어진 지식 상황에 상대적이다”라고 말한다.²³⁾ 따라서 I-S 모델의 M에는 인

22) 필자는 이런 이론이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론이기는 하다.

식상항 상대적 개념이 들어가며 이는 그의 모델을 심각하게 비실재론적으로 만든다. 현재 지식상황에서 성립하는 x 와 y 사이의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언제든지 보다 개선된 인식적 상황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I-S 모델이나 키처의 통일 이론에서 나타나는 K-상대성은 반사실적 의존성 인과분석과 결합된 인과적 설명이론에서 나타나는 화용론적 맥락 상대성에 비해 훨씬 더 큰 비실재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화용론적 맥락 상대성의 경우 우리는 어떤 다른 화용론적 맥락 속에서 이전의 화용론적 맥락 속에서 성립하던 설명적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게 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설명적 관계가 “잘못된” 설명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I-S 모델이나 키처의 이론은 임의의 사건이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잠재적으로 설명적 유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허용하는 이론은 아니며, 이들 이론에 있어서 M의 내용은 공허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키처의 이론을, 김재권이 그 이론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완전한 의미에서의 설명적 비실재론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²⁴⁾ 필자가 제시하는 개념적 틀은 이런 다양한 층위의 실재론 비실재론 구분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4.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설명이론의 정체성에 대한 소박한 성격규정이 갖는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필자의 진단에 따르면 설명이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의 난점은 설명이론이 갖는 복잡성에 기인하며 설명이론의 복잡성은 설명적 관계가 갖는 다중적인 차원에 기인한다. 특히 설명적 관계가 갖는 다양한 차원들 가운데서

²³⁾ Hempel (1965) p.402.

²⁴⁾ 김재권은 “우리는 인과를 설명으로 분석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명적 비실재론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라고 말한다. Kim (1987) p.232. 키처는 인과 개념을 설명 개념으로 분석하려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Kitcher (1989) p.499.

는 설명이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중요한 우열관계가 있으며,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설명적 관계의 4개의 차원들 가운데 두 개의 차원, 즉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과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차원만이 설명이론의 정체성의 규정에 유관하다.

참고문헌

- Dowe, P. (2000) *Physical Causation*, Cambridge Studies in Probability, Induction, and Decision Theor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e, P. (2001)“A Counterfactual Theory of Prevention and ‘Causation’ by Omiss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 no. 2: 216-26.
- Dowe, P. (1992)“Salmon, Wesley Process Theory of Causality and the Conserved Quantity Theory.” *Philosophy of Science* 59, no. 2: 195-216.
- Friedman, Michael. (1974)“Explanation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Journal of Philosophy* 71: 5-19.
- Hempel, C. and P. Oppenheim. (1948)“Studies in the Logic of Explanation.” *Philosophy of Science* 15: 135-75.
- Hempel, Carl Gustav. (1965)“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and Other Essay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333-496. New York,: Free Press.
- Kim, J. (1987)“Explanatory Realism, Causal Realism, and Explanatory Exclus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2: 225-39.
- Kitcher, P., and W. Salmon. (1987)“Van Fraassen on Explanation.” *Journal of Philosophy* 84, no. 6: 315-30.
- Kitcher, Philip. (1989)“Explanatory Unific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In *Scientific Explanation*, edited by Philip Kitcher and Wesley C. Salmon, 410-505.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ewis, D. (1973)“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 556-67.
- Lewis, David. (1986)“Causal Explanation.” In *Philosophical Papers*, 214-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avid. (1986)*Philosophical Paper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slen, Cei. (2004)“Causes, Contrasts, and the Nontransitivity of Causation.” In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edited by John David Collins, Edward J. Hall and L. A. Paul, 341-57: MIT.
- Matthews, R. J. (1981)“Explaining and Explana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8: 71-7.
- Ruben, David-Hillel. (1993)*Explanation*, Oxford Readings in Philosoph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lmon, Wesley C. (1984)*Scientific Explan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mon, Wesley C. (1971) “Statistical Explanation” in *Statistical Explanation & Statistical Relevance*, edited by Wesley C. Salmon, Richard C. Jeffrey and James G. Greeno,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p.29-87